

농진청 잠사양봉소재과 산청 대포마을과 1과 1촌

- 지속적인 상호 교류 및 기술 지원 다짐
- 현장 수요 파악해 연구사업에 반영키로



조균환 부회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이하 소재과)와 경남 산청 삼장면 대포마을이 1과 1촌을 맺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원도 진행하였다.

산청군 정보화 시범마을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균환 양봉협회 부회장(사진)은 “연구기관과 농촌현장의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과 같은 1과 1촌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현장의 목소리가 연구기관에 전달되고 다양한 연구결과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오늘의 행사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지난 10월 26일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추진 및 현장기술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조균환 한국양봉협회 부회장과 이광길 농진청 잠사양봉소재과장, 대포리 지역농가 및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한편 이날 농가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지역농가와 농진청과의 상호교류 및 기술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양봉산물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요청했다.

이날 소재과는 산청군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된 대포마을을 둘러보고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이에 소재과는 산청군 시범마을인 대포마을과의 지속적인 기술·교육 지원을 약속하고 현장 기술 수요를 파악해 이를 연구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포마을 이외에도 많은 현장과 1과1촌을 맺고 푸른농촌 희망찾기 홍보에 앞장키로 했다. **양봉**

이광길 잠사양봉소재과장은 대포마을 농가를 대상으로 ‘푸른농촌 희망찾기’ 취지 및 추진배경을 소개하며 안전한 농산물 만들기, 깨끗한 농촌만들기, 농업인 의식 선진화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지역 농가 일손 돕기와 함께 월동봉군관리 방법 및 노제마병 검사시료 채취 등 양봉장 현장기술